사도세자와 정조의 뜰, 융릉과 건릉
(길 위의 인문학 산책)

경기도 인문교양교육자료개발연구회, **'인문학 길 위에서 만나다.'**의 원고일부입니다.

매홀고등학교 황보근영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이심전심 아니랄까?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내와의 휴일이다. 아내가 융건릉에 가잔다. 또 가잔다. 오늘같이 조용히 비 내리는 휴일이면 제격이다. 비 내리지 않아도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도 이곳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융건릉이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양시를 떠나 낯선 이곳 화성으로 이사 와서도 늘 마음 한 구석에 다행이라 여기는 것도 융건릉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서삼릉과 서오릉이 있고, 가까운 파주에는 파주삼릉이 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당일치기 휴양지였다. 우리 부부가 특별히 왕릉나들이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생에 우리가 왕족이었나? 하하하.

누구에게라도 그럴 거라며 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들이하기에 왕릉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도심에서 가깝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밀어를 나누기 좋을 만큼 조용하다. 시원한 숲길을 산책하기에도 좋고, 어린 아이들은 뛰어 다니며 놀아도 다치거나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 지친 삶을 달래며 돗자리 펼쳐놓고 쉬다가 작은 책 한권 다 읽고 돌아오기에도 좋다. 그러다가 졸리면 그걸로 얼굴 덮고선 한 숨 자고와도 좋다. 무엇보다 푸른 숲 속과 그늘의 쉼터도 있고, 가슴 탁 트이게 넓고 푸른 곳에 왕족과 역사가 있어 좋다. 가끔 만나는 다람쥐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아내와 함께 했던 그곳을 선생님들과 같이 찾아가고,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좋았던 곳을 다시 아내와 찾아간다. 뜻이 맞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 다른 생각 나누기에도 이곳은 참 좋다. 그 때 나누었던 자료를 여기에 붙이고 지금의 생각을 또 더한다.

조선 왕릉에 대하여

유네스코 로고

1408년 조성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에서부터 시작되어 1926년 조성된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홍릉까지 500여년의 조선 왕릉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내 삶의 주변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多幸)인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조선 왕릉의 가치는 무엇인지, 융릉과 건릉을 찾아가는 인문학 산책을 한다.

세계유산 로고

먼저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정받은 인류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미학이 있다.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며 절제되고 검소하게 조성되었다.
•유교적 풍수사상과 장례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조경양식
•6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왕릉의 제례의식
•동아시아의 무덤 건축 발전 단계를 잘 보여줌
•조선 왕릉 전체가 정부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 보존
•왕릉 조성 과정과 장례식의 상세한 기록

참고로 왕릉의 조성과정과 장례식을 상세히 기록해둔 <조선왕조의궤>의 <산릉도감의궤>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2007년)에 등재 되었다. 이 중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는 그림인 능행도는 무려 길이가 15.4미터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세계기록유산을 가졌다.

조선의 왕이 27명이니 왕릉은 27기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왕릉은 총 42기의 능과 2기의 묘가 있다. 왕세자와 왕세자비 또는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인 원(園)은 13기이다. 이는 역대 국왕의 능 이외에 왕비의 능과 추존왕릉(사도세자의 융릉)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며, 2기의 묘란 임금이었지만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묘를 말한다. 현재 북한에도 태조 이성계의 첫째부인인 신의왕후의 제릉과 조선 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이 있다.

조선 왕릉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묘호와 능호를 알아야 한다. 묘호는 임금이 죽으면 붙어지는 이름이다. 즉 세종, 영조, 정조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능호는 그 임금이 묻히는 무덤의 이름이다. 세종의 영릉, 정조의 건릉 등을 말한다.

성명	묘호	시호	능호	자	호
이성계 이단(旦)	태조 (太祖)	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	건원릉 (乾元陵)	군진 (君晋)	송헌 (松軒)
이도(裪)	세종 (世宗)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	영릉 (英陵)	원정 (元正)	
이산(祘)	정조 (正祖)	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	건릉 (健陵)	형운 (亨運)	홍재 (弘齋)

[조선조 역대왕의 묘호-시호-능호 구분]

무덤의 종류와 이름도 알아야 한다.

•능(陵) : 왕과 왕비의 묘 [건릉 : 정조와 효의왕후능]
•원(園) :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비의 무덤 [소경원(서삼릉) : 16대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
•묘(墓) : 능과 원 이외의 일반인 무덤 [대빈묘(서오릉) : 숙종 후궁 희빈 장씨]
•총(塚) : 무덤 주인공은 모르지만 벽화 등 특징적 무덤 [장군총, 천마총]
•분(墳) : 주인공과 특징이 모두 없을 때 붙이는 이름 [고구려 고분]

사도세자의 무덤은 처음엔 '수은묘'였다가, 장헌세자로 봉해지면서 '영우원', '현륭원'으로 격상되었으며, 고종 때에 장조로 추존되면서 '융릉'으로 격상되었다.

조선 왕릉 상설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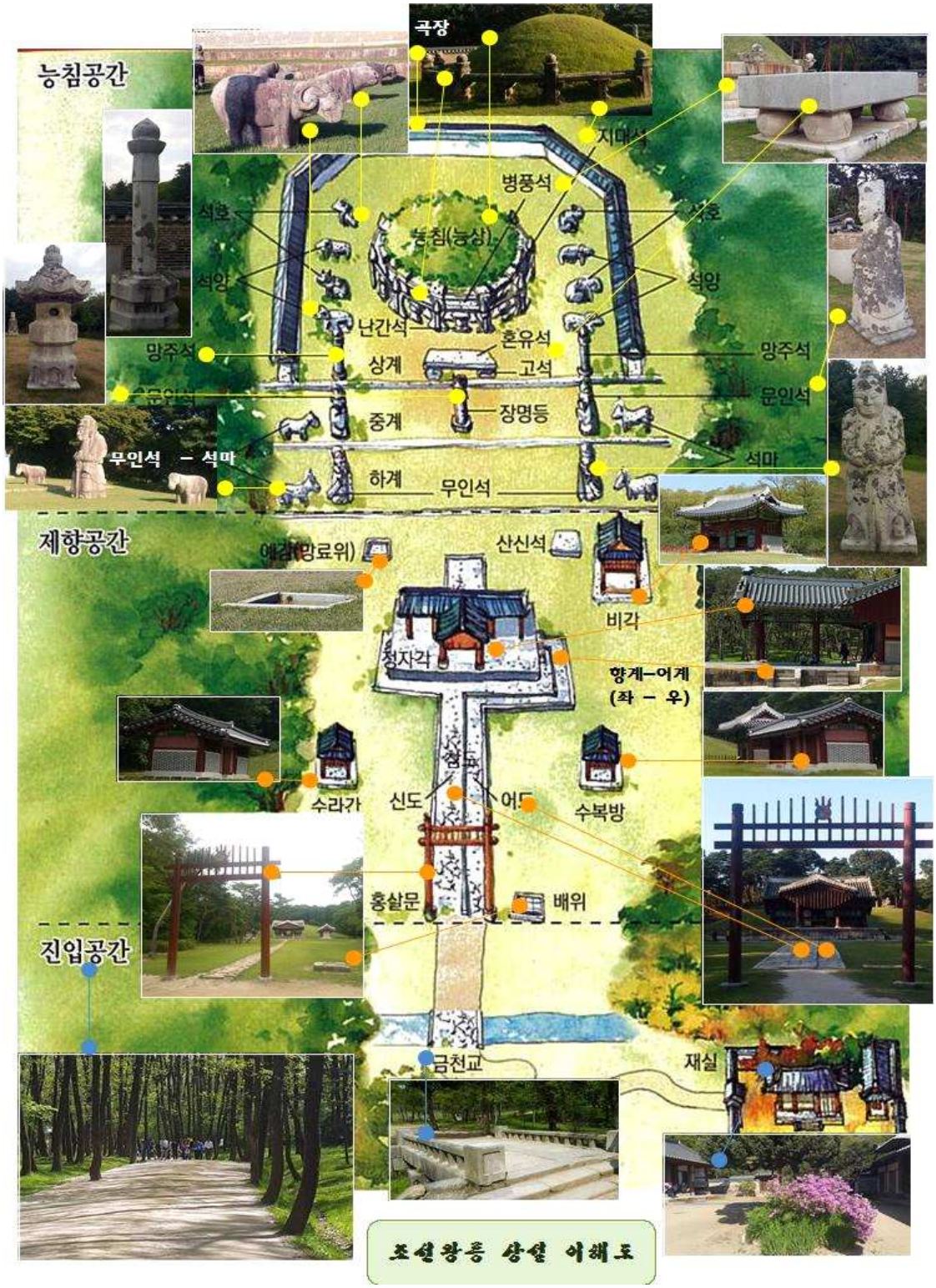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했다. 무작정 걸으며 무심하게 자연과 역사에 동화되어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문화에 대한 간단한 식견과 이해가 있으면 의미와 감동이 더 크게 전해진다. 우선 이름이라도 알아두자. 그런 다음 이름에 붙여진 의미를 하나씩 더해 가자. 왕릉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이다.

[진입공간] : 속(俗)의 세계이다. 임금과 신하들이 제향을 준비하고 참배하러 들어가는 공간이다.

화성의 건릉 참배 진입로

■ 조선 왕릉 상설 이해

문화재청 융릉관리소 '융릉 건릉' 안내지에서 밑그림을 가져와 재구성함



•재실(齋室) :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이 거주하며 제사를 준비하고 제관들이 머무는 장소이다.

•연지(蓮池) : 모든 능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네모난 연못가운데에 둥근 섬을 둔 방지원도(方池圓島)이나, 융릉에는 원형의 곤신지가 있다. 원지(圓池)는 용의 여의주를 상징한다.

융릉, 연지 : 원형의 곤신지.

•참배로 : 양쪽으로 키 큰 나무가 울창하며 흙길이 참배자의 발걸음을 위로한다. 성스러운 능역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려 구불하게 곡선으로 길을 내었다.

•금천교(禁川橋) : 임금님 계신 궁궐에 들어갈 때나 부처님 계신 사찰에 들어갈 때, 속진을 씻고 정결하게 들어가듯이 왕릉에 누워계신 선왕을 뵈올 적에도 상징적으로 이 다리를 건넌다.

•홍살문 : 홍전문(紅箭門)이라고 한다. 좌우 하나씩 둥근 나무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대신해서 화살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박아 세우고, 가운데에는 태극문양을 새겼다. 살대는 법도의 곧고 바름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붉은 색칠을 하였기에 홍살문이라고 한다. 살은 바로 화살을 말한다. 홍살문은 능, 원, 묘, 사당, 궁전, 관아 앞에 세우며 이곳이 신성하고 경의를 표해야하는 지역임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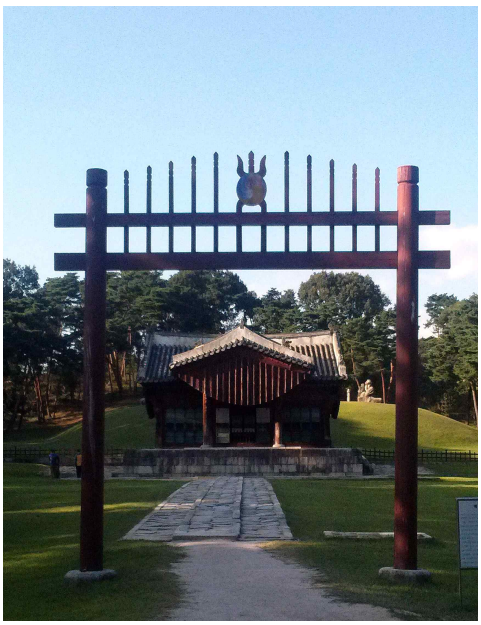
융릉, 금천교

[제향공간] : 성과 속이 만나는 공간이다. 산 이와 죽은 이가 만나고, 임금이 선왕께 제향을 드리는 공간이다.

•배위(拜位) : 홍살문 옆에 한 평 정도 돌을 깔아 놓은 곳으로 판위(版位)라고도 한다.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왔을 때 홍살문 앞에서 내려 이곳에서 절을 하고 들어가며, 수릉관· 헌관· 향축을 올리는 신하들은 이곳에서 절을 네 번 한 후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이곳에서 네 번 절을 하고 나온다. 평소 능을 참례하는 신하들은 이곳에서 절을 드렸다.

파주삼릉, 순릉의 제향공간 : 홍살문, 판위, 참도(신도와 어도), 수라간, 수복방과 정자각이 보인다. 능침공간은 정자각에 가려 있다.

•참도(叅道) :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보통 폭이 3미터 정도로 돌을 깔아 놓은 길이다. 왼쪽의 약간 높은 곳은 신이 다니는 신도(神道)이고, 오른쪽의 약간 낮은 길은 임금이 다니는 길 어도(御道)이다. 관람객들은 가능한 신도로 걷지 않고 어도로 걷는 것이 예의다. 신도는 임금도 걷지 않았던 길이다. 배위에서 절을 올리며 선왕의 영을 만나서 부자가 신도와 어도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상상이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다. 부자가 나란히 손을 잡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정자각으로 걸어가고 있다. 물론 제례가 끝난 다음에는 임금 혼자서 돌아와야 하는 길이다. 울퉁불퉁하게 박석을 깔아두었기에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



철종의 예릉, 참도 : 황제추존 후 삼도로 조영되다보니 일주문에서 왼쪽으로 치우쳤다.

•비각(碑閣) : 비석이나 신도비를 안치하는 곳.

•신도비(神道碑) : 능이나 묘 주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이다.

•수복방(守僕房) : 제사 그릇을 보관하는 곳으로 능을 지키는 수릉관이나 수복이 지내던 곳이다. 수복청이라고도 한다.

•수라간(水刺間) : 제물을 마련하던 집이다.

•정자각(丁字閣) :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황제릉은 일자(一字)모양으로 침전을 조성하지만, 왕릉은 정자각을 조성한다. 정자각은 한자로 정(丁)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일(一)의 정전에는 선왕이 제례를 받고, 궐(亅)의 배전에는 아들인 임금이 제례를 드리며 부자가 만나게 되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정자각에 오를 때는 동쪽의 향계(또는 혼계, 운계)와 어계(임금계단)로 오르고 내려올

때는 선왕과 헤어져 왕 홀로 서쪽의 어계로 내려온다. 선왕은 정전 바로 뒤로 난 신문(神門)을 열고 사초지로 이어지는 신교(神橋)를 건너 능침으로 돌아간다. 선왕은 아들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아들도 헤어져 돌아가며 몇 번이나 선왕을 돌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정자각에 가려지고 사초지 속으로 사라지니 서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 처연한 생각이 든다.

정자각 향계(혼계)와 어계

•예감(瘞坎) : 정자각 뒤 서쪽에 제향 후 축문을 태우던 곳으로, 석함(石函)이라고 하며, 소전대 또는 망료위(望燎位)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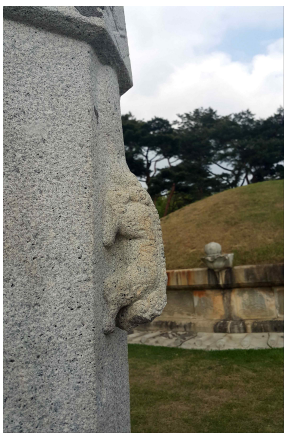
선왕은 정자각 바로 뒤에 있는 신교를 건너 능침으로 돌아간다.

[능침공간] 오롯이 성역(聖域)이다. 하계에는 좌우에 무인석과 석마가 설치되었고, 중계에는 좌우에 문인석과 석마가 있으며 가운데 장명등이 있다. 상계 가운데 혼유석과 좌우에 장명등이 있으며 그 뒤로 능역의 주인이 묻힌 능침과 석양과 석호가 좌우에 앉아있다. 좌우후방에 곡장을 둘러 능침을 보호하고 위엄을 높이고 있다.

[희릉 능침공간-석마, 무인석과 문인석. 망주석, 장명등, 혼유석, 봉분]

•무인석(武人石) : 왕을 호위하며,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장검을 짚고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석마(石馬) : 문인석과 무인석은 각각 석마를 대동하고 있다.
•문인석(文人石) : 언제든지 왕명에 복종한다는 자세로 양손으로 홀을 쥐고 서 있다.
•장명등(長明燈) : 왕릉에 불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잡귀의 접근을 막는 뜻으로 세웠다.

•망주석(望柱石) : 혼이 놀러갔다가 망주석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덤 양옆에 돌기둥을 세웠다. 혼이 망주석에 새겨진 세호를 타고 봉분 안으로 드나든다고 한다. 망주석에는 세호(細虎)라는 작은 호랑이가 돋을 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호랑이가 아니라 꼬리가 긴 다람쥐 모양처럼 생겼다. 봉분을 보아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모양이다.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운다고 한다.


융릉, 망주석 세호

문인석

무인석

•혼유석(魂遊石) : 일반인의 묘에는 상석이라 하여 제물을 차려놓는 곳이지만, 왕릉은 정자각에서 제를 올리므로 혼령이 앉아 노는 곳이라 하여 혼유석이라고 한다.

•고석(鼓石) : 혼유석의 받침돌로 북모양을 하고 있다. 사악한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귀신의 얼굴을 새겨 놓았는데, 황제의 능에는 5개, 왕의 능에는 4개의 고석을 받쳐 놓았다.

융릉, 고석 귀면(鬼面)

•석양(石羊)과 석호(石虎) : 석호와 석양은 봉분을 중심으로 네 쌍이 밖을 보도록 설치하였는데, 융릉의 경우와 같이 추존된 왕의 능에는 반으로 줄여 두 쌍식 설치하였다. 석양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석호는 능을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난간석(欄干石) : 봉분 주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제일 높은 기둥을 석주(石柱), 석주를 가로지른 횡석주를 죽석(竹石)이라 하고, 죽석의 중간에 받쳐준 작은 기둥을 동자석주(童子石柱)라 한다.

희릉(서삼릉)의 난간석(석주, 죽석, 동자석주)과 석양 석호 곡장

•병풍석(屛風石) : 봉분 밑 부분에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12개의 둘레석이다. 병풍석에는 12방위를 나타내는 십이지신상을 해당 방위에 맞게 양각하였다. 모든 방위로부터 침범하는 온갖 부정과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다.
•곡장(曲墻) : 봉분을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역의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삼면으로 담을 둘러놓은 것이다.

능역(陵役)을 조성하는 절차는 먼저 전국에서 유명한 풍수사를 뽑아 상지관(相地官)으로 임명하고 한양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서 능을 선정하고 능역의 조성 공사를 맡겼다. 보통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으며 능역 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약 6,000 ~ 9,0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왕이 돌아가시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탈상 때까지 대군 공주 군 옹주 문무백관이 매년 제사에 참례하였다.

비록 유교 국가이지만 왕릉 부근에는 망인의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비는 사찰로서 원찰(願刹)을 두었다. 왕실의 국상을 당하면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을 설치하여 장례일까지 장례절차를 관장하고 준비하며 봉분 조성과 부대시설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융릉 가까이에 있는 용주사는 바로 정조대왕이 부친의 수은묘를 지금의 화산으로 옮기며 현륭원으로 승격하고 가까운 곳에 절을 건립하여 비명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원찰이다. 용주사라는 이름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정조대왕의 꿈에서 비롯되었다. 곤신지에서도 그러하듯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용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용주사는 사찰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는 묘당의 기능도 하기에 일반 사찰에 없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화성의 융릉과 건릉에 대하여

융릉 건릉의 배치도와 관람 포인트 ① 융릉의 원형 연못 곤신지 : 원형 연못은 용의 여의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조가 아버지를 연모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② 넓은 참도 ③봉분 병풍석의 연꽃봉오리 인석 ④ 건릉에서 나오는 길 참나무 숲 길 ⑤ 재실의 향나무와 개비자나무

– 문화재청 융릉관리소 '융릉 건릉' 안내지에서

융건릉의 정식 명칭은 '융릉(隆陵)과 건릉(健陵)'이다. 융릉은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혜경궁 홍씨의 무덤이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며 당당히 외쳤다. 역적으로 몰리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며 복권시킨다. 먼저 양주의 배봉산에 있는 아버지의 수은묘를 영우원(永佑園)으로 높였다.

이후 존호를 장헌세자로 올린 다음,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하였다. 통상 왕릉은 한양도성에서 10리 밖 100리 안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조는 이 원칙을 무시했다. 키 큰 장정들을 모아 한 걸음을 크게 잡은 뒤에 이곳 화산이 100리 안이라고 주장하며 천장을 강행하였다. 탕탕평평과 임기응변의 그의 도량이 돋보인다. 그 후 1899년 고종 때에 장헌의황제로 추존되면서 묘호를 장조(莊祖)라 하고 능호를 융릉으로 승격하며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혜경궁 홍씨도 장헌의황후로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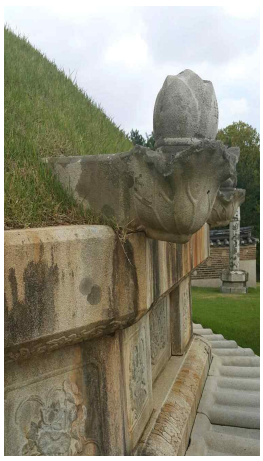
홍살문에서 참도를 걸으면 정자각과 봉분이 일직선상에 있어 능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융릉은 봉분이 훤히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즉 능침공간이 정자각에서 오른쪽으로 삐져나와 보인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실 적에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며 안타깝게 여긴 아들의 효심에서 비롯되었다. 사초지도 다른 능과 달리 매우 낮다. 찾아오는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보고자 한 듯하다.

융릉 : 능침이 정자각에서 오른쪽으로 비켜 나있어 훤히 보인다.

합장릉인 융릉은 병풍석을 세우고 모란과 연꽃무늬의 인석(引石)을 새겼다. 석등은 조선 전기의 8각형과 숙종, 영조 대에 등장한 4각형 석등의 양식이 합쳐졌다. 새로운 양식으로 건릉과 예릉의 기준이 되었다. 무인석과 문인석도 예전과 달리 머리를 들고 있어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문인석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정조는 현륭원을 마련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창의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융릉의 장명등

능침 병풍석 위에 있는 인석은 서럽도록 아름답다. 연꽃 봉우리는 못 다 피운 사도세자의 청춘과 꿈을 보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연꽃이 처염상정(處染常淨)과 재생을 상징하듯 아버지의 정결한 영혼과 부활을 그리는 듯하다. 봉분을 호위하는 석양 석호는 각 두 쌍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왕릉과 다르다. 또한 일반적인 왕릉에는 병풍석은 없어도 난간석이 있는데, 융릉은 화려하게 꽃단장한 병풍석은 있으나 난간석이 없다. 이 역시 갇혀 있는 것을 싫어했던 사도세자의 심중을 헤아린 아들의 효심일 것이다. 가장 서러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융릉의 능침공간에 올라 연꽃봉우리 인석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이다. 코를 가까이 대고 향기라도 맡아볼 걸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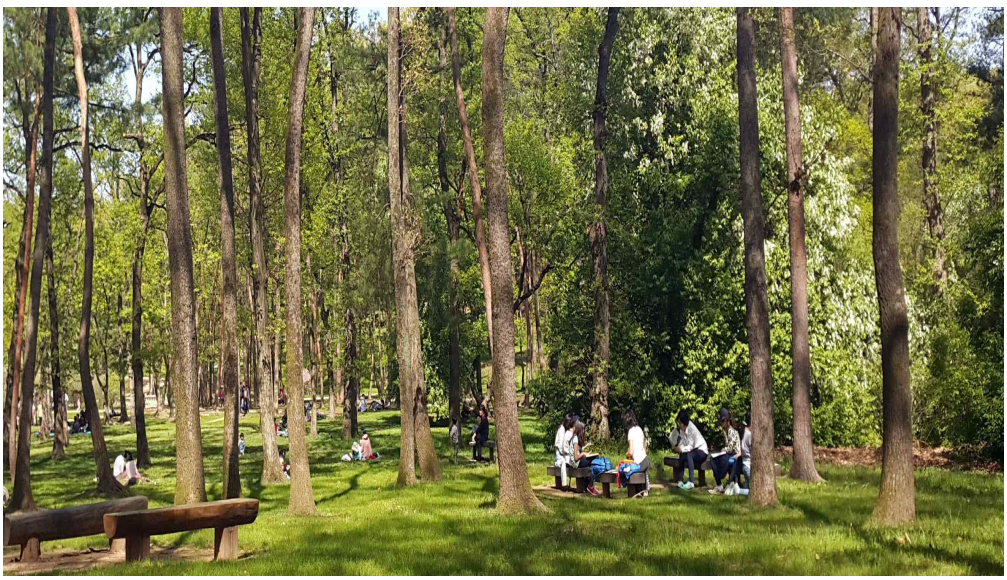
융릉의 인석

융릉의 석인(문인석과 무인석)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와 그의 부인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선 후기의 황금문화를 이룩하였다. 건릉은 현륭원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가 죽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하였다. 무덤은 한 언덕에 2개의 방을 갖추었으며 난간만 두르고 있다. 즉 융릉에는 병풍석은 있으나 난간석이 없고, 건릉에는 병풍석이 없으나 난간석이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합장릉이지만 혼유석은 하나만 있으며, 융릉과 같이 8각형과 4각형을 조화시켜 석등을 세웠다. 문무석은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빼어난 조각으로 19세기 무덤의 석물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사초지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봉긋하게 솟아 보이는 것은 풍수상의 가산(假山)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건릉 : 배위, 참도, 정자각, 사초지 오른쪽의 불룩한 가산

융건릉 탐방 후에 수림초지에 돗자리를 깔고 차를 마신다. 그늘과 새소리에 깊은 호흡하며 다시 한 번 더 느낀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주는 그 넉넉함에 감사하다.



융릉과 건릉의 수림초지

참고문헌

- 세계유산 조선왕릉 융릉 건릉 안내지, 문화재청 융릉관리소
- 세계유산 조선왕릉 서삼릉 안내지, 문화재청 서삼릉관리소
- 세계문화유산 신의정원 조선왕릉, 이창환, 한숲, 2014
- 쏭내관의 재미있는 왕릉기행, 송용진, 지식프레임, 2014
- 쏭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기행, 송용진, 지식프레임, 2014
- 역적의 아들 정조, 설민석, 휴먼큐브, 2014
-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들녘, 1996
- 선현들의 자(字)와 호(號), 신용호ㆍ강헌규, 전통문화연구회, 1997
- 호ㆍ조선 선비의 자존심, 한정주, 다산초당, 2015